

한국 군사사상사 연구의 흐름과 근세 군사사상의 일례

-15세기 군사사상가 梁誠之를 중심으로-

노영구*

목 차

- I. 머리말
- II. 한국 군사사상사 연구동향
- III. 근세 한국 군사사상의 일례
- IV. 맺음말

I. 머리말

군사사상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역사성과 시대적 상황에 바탕을 두면서 당시의 국내외적 안보환경과 국가의 총체적 환경, 과학 기술 등을 고려하면서 형성된 군사에 관한 사상체계라고 할 수 있다.

*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부 교수

그러나 일반적인 사상 체계와 달리 국가전략과 군사분야에 대한 안전 보장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군사사상은 구체적인 군사전략과 국방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군사사상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¹⁾

군사사상의 범주와 정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의가 있어 왔다. 일본의 군사 연구자인 淺野祐吾는 군사사상이란 軍事를 구성하는 분야 사이의 인과 관계를 종합한 것으로서, 군사제도, 兵器, 用兵은 군사사상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였다.²⁾ 이에 비해 육군본부에서 편찬된 『韓國軍事思想』에서는 군사사상을 구성하는 주된 요소로 전쟁 지도 및 수행신념분야, 군사력 건설 분야, 군사력 운용분야 등으로 규정하고, 이에 입각하여 군사사상을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 및 장차 전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토대로 어떠한 전쟁의지와 신념으로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할 것인가에 관한 개념적 사고체계’로 정의하고 있다.³⁾ 그외에도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대체로 군사사상에 대한 정의와 범주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기존의 연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⁴⁾

전쟁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네트워크화된 정보기반 사회로 지속적으로 이동함에 따라 제4세대 전쟁이라는 새로운 전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기술적 기반의 진화는 안보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만 위협의 양상도 매우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응하기 어려운 위협도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⁵⁾ 새로운 안보적 상황의 전개로

1) 최문길, 1994 『군사사상의 정립체계』 국방대학원, 6쪽 <표-1> 참조

2) 淺野祐吾, 1979 『軍事思想史入門-近代西洋と中國-』 原書房, 9쪽

3) 육군본부, 1992 『韓國軍事思想』 24쪽

4) 중국에서는 軍事思想을 ‘戰爭과 관련된 謀略과 智慧, 理論學說, 그리고 指揮藝術’로 규정하고 범주화하고 있다(姜國柱, 2006 『中國軍事思想簡史』 新世界出版社, 2쪽).

한국 군사사상사 연구의 흐름과 근세 군사사상의 일례

인해 우리는 미래의 위협에 대해 예측하기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전쟁 양상과 군사력 건설 방향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문제 등 우리 주도의 국가안보정책과 군사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의 상황에 적합한 군사사상의 정립이야말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군사사상이 전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전쟁의 특성, 목적, 형태 등을 명확하게 간파하고 전쟁의 승리를 획득할 수 있는 최선의 전쟁지도, 준비, 수행방법을 구상하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올바른 군사사상 정립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가진 군사사상 정립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예를 들어 김희상은 한 국가의 군사사상은 그 국가가 처해있는 국제정치적 상황, 국가의 인구, 경제력, 부존자원 등 顯在的 國력과 기후, 기상, 지형 등 자연 조건 및 국가의 전략적 환경과 미래전쟁에 대한 그 국가 나름대로의 예측과 이해, 그리고 국가가 갖는 이상과 목표, 전쟁에 대한 일반적 지혜 등이 상호 조화·융합되어 형성된다고 언급하였다.⁶⁾ 이외에도 민족정신, 군사적 전통, 地戰略的 환경, 의식 구조 등이 군사사상 정립의 영향 요인으로 언급되기도 한다.⁷⁾ 이를 통해 대체로 군사사상 형성에는 지정학적 요인, 국내외적 상황, 민족문화 및 군사적 전통, 과학기술 등이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군사사상 정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지만 한 국가의 군사사상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 즉 군사사상사를 통해 향후 군사사상의 발전 방향을 파악하는 것은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군사사상사는

5) Thomas X, Hammes(최종철 역), 2008 『21세기 제4세대 전쟁』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74쪽

6) 김희상, 1993 『생동하는 군을 위하여』 전광, 212쪽

7) 육군본부, 1983 『군사이론 대국화 추진방향』 194~196쪽

종합적인 군사사상을 역사적으로 전개하여 각 시대의 특색과 그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재에 적합한 군사사상을 정립하기 위해 군사선진국의 최신의 군사이론이나 사상을 이론적 측면에서 받아들이기보다 한국의 군사사상사의 흐름을 정리하는 것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유용성을 가진다.

군사사상사 연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 방법이 있지만 淺野祐吾에 의하면 몇 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먼저 전쟁사의 특정 장군들의 用兵 운용 양상을 고찰하고, 둘째 특정 시대의 유명한 兵學書 등을 통해 用兵 이론을 연구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될 것이다. 세번째 전쟁에서의 실제 용병 사례와 병학서 등의 용병 이론 간의 공통성을 고찰하고, 이어서 해당 시대의 역사를 바탕으로 당시의 군사사상 성립의 인과 관계를 조사하여 보편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군사제도 및 무기체계와 用兵 사상과의 관계를 통해 군사사상 성립의 내적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다.⁸⁾ 이를 통해 군사사상사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대상은 군사관련 인물의 용병사상이나 군사관련 서적에 대한 검토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두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당시의 시대 상황 및 군사제도, 무기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인 군사사상사 정립이 이루어지게 된다.

II. 한국 군사사상사 연구 동향

앞에서 언급한 군사사상 정립의 요인과 군사사상사 연구 방법 등은 한국 군사사 연구에도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한국의 군사사는 지난 10여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1960년대 후반 육군사관학교 한국군사연구실에서 조선전기 군사제도의 변화 양상을 전반적으로 정리한 통사적 연구서인 『한국군제사』(근세조선전기편)를 간행하여 한국 군

8) 淺野祐吾, 1979 『앞의 책』 9~11쪽

사제도사 연구의 기반을 마련한 것을 계기로 한국 군사사는 한국사 분야에서 주요한 부문으로 정립되었다. 이후 군사시설 및 국방체제, 전쟁사 등으로 연구가 확산되었다.⁹⁾ 특히 최근 들어서는 활용 자료의 확대와 함께 단순한 군사 제도나 군역 등의 양상과 변화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별 방어체계라는 측면에서 군사사의 전체적인 조망을 시도하거나 국제정치사적인 측면에서 주요한 전쟁을 분석하는 연구, 그리고 무기체계와 전술·무예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전쟁사를 보다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연구 등이 나타나고 있어 한국 군사사의 외연은 매우 확대되고 있다. 더 나아가 중국·일본 등 주변국이나 서구의 군사사 연구를 의식하면서 한국의 군사사 연구를 자리매김하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는 점은 한국의 군사사가 다른 한국사 분야에 비해 상당히 보편적이며 선진적인 양상을 띠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한국 군사사 연구 중에서 유독 군사사상사 분야는 매우 취약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군사사상사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검토의 대상인 군사전문 서적인 兵書와 관련 서적의 조사, 정리도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1970년대 이후 조선시대 병서에 대한 서지학적 정리와 검토가 이루어지고¹⁰⁾ 兵書에 나타난 조선시대 전술을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진 정도가 대표적인 것이 이를 대변한다.¹¹⁾ 다만 1990년대 국방군사연구소의 주도로 한국의 주요한 군사 관련 서적인 『兵學指南演義』, 『風泉遺響』, 『陣法』 등 10여종의 병서가 성백효 등에 의해 번역되고, 아울러 『紀效新書』, 『壇究捷錄』, 『하거집·병인일기』 등 수종의 병서 影印 작업이

9) 노영구, 2007 『최근의 조선시대 군사사 연구경향과 과제』, 『교수논총』44, 47~56쪽

10) 강성문 외, 1973 『한국군사사적해제』 육군사관학교 ; 정하명, 1979 『고병서해제』 육군본부 ; 정해은, 2000 『장서각 소장 군영등록류 자료에 관한 기초적 검토』 『藏書閣』4 ; 정해은, 2004 『한국 전통병서의 이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정해은, 2007 『한국 전통병서의 이해』(2)

11) 허선도, 1969 『무예도보통지』, 『한국의 명저』 현암사 ; 허선도, 1970 『<陣法>考 - 書名 <병장도설>의 잘못을 바로 잡음』 『역사학보』47 ; 노영구, 2002 『조선후기 병서와 전법의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루어진 것은 특기할만한 사실이다. 이러한 선행 연구는 군사사상사 관련 연구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않다. 국방군사연구소의 작업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군사사상가인 『풍천유향』의 저자 송규빈의 존재가 드러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아직 전문적인 군사사상가의 존재와 군사사상에 대한 통사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문신 중심의 저술이 일반적이었던 조선시대의 경우 군사 문제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무신의 저술이 『풍천유향』 등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군사사상사 연구를 어렵게 한다. 게다가 중국 병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한국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체계의 병서가 저술되기에는 한계가 적지 않았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손자병법』에 대한 중국의 여러 주해서가 조선에 도입되었는데 비해, 조선의 자체적인 註解書는 세조대에 간행된 『武經七書註解』 간행 이래 19세기 중반(1869) 무신 조희순이 저술한 『孫子髓』가 『손자병법』에 대한 조선의 독자적인 주해서라는 사실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¹²⁾

군사사상사 관련 자료의 부족과 함께 군사사상사 관련 연구자의 군사사상에 대한 전문적, 이론적 시각의 확립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군사사상사 연구 침체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군사사상 관련 인물의 해당 자료의 성격과도 관련이 있지만 그동안 주요 군사 관련 인물의 군사사상에 관련된 연구의 경우 ‘○○의 군사사상’ 이외에 ‘○○의 국방론’, ‘○○의 국방관’, ‘○○의 군정개혁론’, ‘○○의 軍政思想’, ‘○○의 關防論’ 등 제목이 매우 다양하며 다루는 내용도 필자별로 천차만별인 것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군사사상의 범주와 개념에 대한 기본적 고찰을 행한 이후 접근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 아울러 한국사 연구의 경우 군사사상 관련 연구들이 군사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상사, 혹은 인물사의 범주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 것

12) 조혁상, 2008 『19세기 병서 『孫子髓』 연구』 『군사사 연구총서』5

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양상과는 대조적으로 군사사상에 관한 군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의 경우에도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1980년대 초 한국의 병서에 대한 개괄적인 정리를 바탕으로 육군사관학교에서 한국의 군사사상사에 대해 기초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¹³⁾ 그리고 1980년대 중반~1990년대 초 육군본부 등을 중심으로 한국 군사사상에 대한 통사적 서술이 시도되었다.¹⁴⁾ 이러한 연구는 각 책의 서문에 나타나 있듯이 197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던 自主國防 정책에 따라 1990년대 자주국방을 목표로 독자적인 군사전략의 확립과 군사력 정비가 요구되던 상황의 한 반영이었다.¹⁵⁾ 그러나 군사사 및 군사사상사 관련 연구가 1970년대 후반 이후 제대로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짧은 시간 내에 통사적 서술을 무리하게 시도한 결과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한국 군사사상사에 대한 의미있는 성과가 제출되지 않고 1990년대 이후 세계화의 진척과 첨단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전쟁 양상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한국의 민족주의와 군사전통에 대한 관심의 쇠퇴 경향과 결부되어 한국 군사사상사 자체에 대한 한국군의 전반적인 관심은 오히려 급속히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국의 역사학계에서는 아직까지 군사사상사를 체계적, 통사적으로 정리하려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다.¹⁶⁾ 여러 인물의 군사사상과 인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연구가 다수 제출되었으나 군사사상사 체계

13) 이병주·강성문, 1981 『한국군사사상사』 육군사관학교

14) 육군교육사령부, 1985 『한국군사사상연구』; 육군본부, 1989 『한국의 군사사상』; 육군본부, 1991 『한국군사사상』

15) 1970~1980년대 한국의 자주국방 정책의 변천과 군사전략에 대해서는 홍준기, 2004 『한국 자주국방 정책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1970년대 박정희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까지를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에 자세하다

16) 한국의 학계에서 1990년대 중반 중국의 군사사상에 대한 통사적 서술이 시도된 것이 현재까지의 거의 유일한 성과라고 특기할 만하다(백기인, 1996 『中國軍事思想史』 국방군사연구소).

와 연구 방법론에 따른 군사사상사 연구를 진행한 것은 아니었다. 실학자의 군사사상이나 이이나 유성룡, 양성지 등 군사정책에 대한 많은 저술을 남긴 인물의 관련 내용을 정리한 연구가 다수 있을 따름이다. 다만 최근 몇 가지 측면에서 변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이전에 밝혀지지 않았던 군사사상사 관련 인물들이 속속 발굴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조선중기 병학자인 韓嶠와 조선후기의 무신인 송구빈이 대표적이다.¹⁷⁾ 이외에도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여러 자료가 발굴되면서 향후 연구가 기대되고 있다. 다음으로 연구의 대상으로 그다지 다루어지지 않았던 조선시대의 국방관 및 軍事觀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¹⁸⁾ 이를 통해 성리학적 명분에 입각한 이상적이고 이념에 맞추어진 조선중기 국방관의 실태가 처음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임진왜란 이후 국방의식의 변화와 국방 전략을 언급한 연구도 나타났다.¹⁹⁾ 최근에는 동아시아 지역의 전쟁관, 군사관에 대한 연구가 국제정치 학계에서 다양하게 다루어지고 있고²⁰⁾ 그 일환으로 조선의 전쟁관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²¹⁾ 최근 국제정치학계를 중심으로 중국, 일본 등 주변국 관련 연구에서 전쟁과 전략 문제를 보다 깊이 연구하고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군사사상, 전쟁관 및 이에 바탕을 둔 전략문화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한다면,²²⁾ 이 부문에 대한 향후 한국 군사사학계의 시각의 확대와

17) 노영구, 2003 『韓嶠-조선의 병학을 정립한 성리학자』, 『한국사인물열전』2 ; 백기인, 2004 『조선후기 국방론 연구』 해안

18) 오종록, 1996 『조선초기의 國防觀』, 『진단학보』86 ; 김경수, 2003 『조선 중기 史官의 국방의식-『명종실록』 사론을 중심으로』, 『군사』48

19) 임민혁, 2004 『임진왜란 전후 국방의식 변화와 국방전략』, 『군사사연구총서』4

20) 문정인 외, 2006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연세대학교 출판부

21) 부남철, 2006 『조선시대의 대외전쟁과 유교적 和·戰論』, 『동양정치사상사』 5-2

22) Alastair Iain Johnston, *Cultural Realism : Strategic Culture and Grand Strategy in Chinese History*(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 Michael D. Swaine, *Interpreting China's Grand Strategy: Past, Present, and*

분발이 요구된다.

세 번째로는 직접 군사사상을 언급한 연구는 아니지만 군사사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領土觀, 海防論 등에 대한 연구가 최근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1990년대 이전까지는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로, 북한 지역에 대한 이해의 심화와 고지도 등을 이용한 연구 자료의 외연 확대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²³⁾ 아울러 일본과 중국의 海防論, 陸防論 등에 연구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²⁴⁾ 실제 영토관의 변화와 영토에 대한 관심의 확대는 생활권의 확보, 권력에 대한 의지, 국가위신의 고양 등이 동기가 되고²⁵⁾ 이는 향후 군사관과 군사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사상사 연구의 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정치학 연구에서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地政學的 연구의 심화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 역사학의 영토관 등의 연구와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들은 국가전략 혹은 군사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연구로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²⁶⁾

Future(RAND Corporation, 2000) ; 로렌스 손드하우스(이내주 역), 2007 『전략 문화와 세계각국의 전쟁수행 방식』 화랑대연구소.

- 23) 배우성, 1998 『조선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일지사 ; 노대환, 2003 『조선후기 서양세력의 접근과 해양관의 변화』 『한국사연구』123 ; 윤훈표, 2003 『조선헌기 북방개척과 영토의식』 『한국사연구』129 ; 강석화, 2003 『조선헌기의 북방영토의식』 『한국사연구』129
- 24) 국내 연구자들에 의한 중국과 일본의 海防 및 陸防에 대한 논문으로는 최희재, 1985 『1874~5 海防·陸防論의 성격』 『東洋史學研究』22 ; 조병한, 2004 『海防 체제와 1870년대 李鴻章의 洋務운동』 『동양사학연구』88 ; 朴榮濬, 2002 『海軍의誕生と近代日本：東アジアにおける近代國家變容の軍事的基礎に關する一研究』 東京大學博士學位論文 등이 대표적이다.
- 25) 권정식 외, 1980 『국방지리』 시사문화사, 69~70면.
- 26) 최근의 지정학 연구 경향에 대해서는 이영형, 2006 『지정학』(엠-에드)에 자세하다. 한편 1940년대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에서 나타난 國防地政學 연구(岩田孝三, 1943 『國防地政學』 帝國書院 ; 江澤讓治 외, 1944 『國防地政論』 巖松堂書店)와 1990년을 전후한 시기 국내의 국방지정학 관련 연구는 향후 지정학, 역사학, 군사학 등이 만날 접점의 한 사례로서 연구자의 관심을 요한다.

최근 군사사상사 관련 연구의 단초가 시작되고 있지만 아직도 극복해야 할 문제는 적지 않다. 특히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사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군사사상에 대한 연구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여러 인물의 군사사상에 관련된 연구가 적지않게 있었지만 그 인물의 군사 관련 주장에 대한 자료 정리의 차원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군사사상에 대한 연구가 일반 사상사 연구자에 의한 검토가 많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 군사사상의 내용이 가지는 당시 정치, 군사적 상황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결여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 한 인물의 군사 정책이나 사상의 경우에도 상황과 시기에 따라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고려한다면 기존의 연구 경향은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군사사상사 연구가 인물의 용병 사상이나 군사적 입장에 대한 검토와 함께 당시의 군사적 상황과의 내면적 관련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특히 그동안 군사사상 관련 논문에서 군사사상의 필수적인 고려 요소인 지리, 군사전략, 무기체계 등의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식이 결여된 채 이루어진 연구가 많았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심지어 특정 인물이 언급하는 군사적 요충 등 구체적 지명을 찾아 그 지역이 가진 군사적 의미를 밝히려는 노력도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의 단순 나열이 이루어진 경우도 적지않게 볼 수 있다.

향후 한국의 군사사상사 연구는 인물별 군사사상 관련 언급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의 정리와 함께 그 인물의 군사사상에 미친 제반 요소의 검토, 그리고 그 시대의 군사적 상황과의 상호 관련 문제 등을 다시금 종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새로운 자료의 추가적인 발굴, 전쟁관 등 아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연구 분야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 통사적 서술을 통한 현대 한국군사사상 정립의 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시각의 확보 등이 요구된다.

Ⅲ. 근세 한국 군사사상의 일례

- 15세기 중반 梁誠之를 중심으로 -

1. 梁誠之의 생애와 시대적 상황

1392년 조선이 건국된 시기는 14세기 중반 이후 중국의 원·명 교체에 따른 동아시아 국제질서 변동이 아직 완결되지 못하고 곳곳에서 여파가 남아 있던 시대였다. 14세기 후반 고려는 군사력 재건과 영토회복이라는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세적(Offensive) 방위전략에 입각하여 군사력을 건설하고 적극적 방위와 예방전쟁을 바탕으로 당시의 국제정세에 적극 대응하였다. 이러한 공세적 방위전략은 조선 태조대까지 유지되었다. 그러나 15세기 전반에 이르러 동북아시아 국제질서가 명나라를 중심으로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수세적인 방위전략으로 변화되었다.²⁷⁾

비록 조선은 명나라와 사대관계를 유지하여 명나라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편입되었지만 명나라와 완전히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수차례 추진된 요동정벌계획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고려말~조선초에 이루어진 조선의 공세적인 주변 영역에 군사적 활동과 독자적인 외교관계 구축 등으로 인해 명나라는 끊임없이 조선을 경계하던 상황이었다.²⁸⁾ 실제 조선은 15세기 초 명나라와 두만강 유역에 거주하며 조선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일부 여진 부족의 관할을 둘러싸고 상당한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조선은 명나라에 귀부한 여진 부족에 대해 군사적 응징을 가하기도 하였다.²⁹⁾ 이러

27) 양진혁, 2007 『여말선초 북방방위전략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i, ii쪽 그림 참조

28) 박원호, 1995 『명과의 관계』 『한국사』22, 국사편찬위원회, 308~316쪽

29) 박원호, 1991 『永落年間 명과 조선간의 여진문제』 『아세아연구』85

한 양상은 세종초 이루어진 대마도정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대마도 정벌은 왜구 근거지의 소탕이라는 군사적 측면의 의미도 있지만 조선의 대외 전략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적지 않은 것이었다. 즉 조선과 중국 해안을 침략하는 왜구를 조선이 주도적으로 소탕함으로써 명나라로부터 한반도 주변 지역에 대한 독자적 자주권을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아울러 대마도 정벌이 일본에 대한 영토 침략이 아니라 조선과 일본 두 나라에 해가 되는 왜구들을 조선이 무력으로 소탕함으로써 대일 우호관계를 보다 견고하게 유지한다는 고도의 외교술을 통해 대일본 관계에서 우위의 지위를 확보하여 향후 대일 교린관계 지속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³⁰⁾ 이처럼 고려말 이후 조선초기의 대외 군사전략 및 대외정책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매우 공세적이며 자주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³¹⁾

세종 말년인 1448년 몽고족의 일파인 오이라트족의 也先(=에센)이 중국으로 남하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원정하던 명나라 황제 英宗이 土木堡에서 포로가 된 사건, 즉 土木의 變은 조선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겼다. 에센은 계속하여 명나라 수도인 북경을 1년 동안 포위하여 명나라에 적지 않은 타격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상황을 틈타 여진족인 건주위의 이만주 일파가 압록강 유역에서 조선에 압박을 가하는 등 이 시기는 동아시아 국제 정세 격동기였다.³²⁾ 그러나 동시에 요동 지역에 대한 명나라의 영향력이 급속히 약화되면서 조선의 독자성은 상당히 확대될 수 있었다. 단종대 일어난 수양대군 일파의 정변(癸酉靖難)과 이른바 사육신 사건 등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이상의 국제정세 격변에

30) 장학근, 1986 『조선시대 해방사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3~58쪽

31) 양진혁은 세종~세종 초 조선의 전략개념은 명나라와의 관계가 안정화되면서 수 세적 방위전략으로 변화하였지만 세종 중반 이후에는 진진방어전략으로 변화하고 여진세력에 대해서는 거부적 억제 전략에서 세종 중반 이후 보복적 억제 전략으로 전환하였다고 주장하였다(양진혁, 2007 『앞의 논문』 125쪽).

32) 록 관텐, 1984 『유목민족제국사』 민음사, 419~421쪽 ; 박원호, 1995 『15세기 동아시아의 정세』 『한국사』22, 국사편찬위원회, 259~260쪽

대한 대응양상을 놓고 나타난 정치적 입장 차이가 한 원인이었다.

계유정난을 통해 집권한 세조는 왕권 확립과 강력한 부국강병정책을 실시하였다. 재정개혁과 함께 保法 및 鎭管體制로 대표되는 국방체제의 강화가 대표적인 세조대의 부국강병정책이다.³³⁾ 부국강병정책의 추진을 바탕으로 조선은 명나라의 요동 지배력이 약화된 상황을 기회로 여진족에 대해 적극적으로 포섭하고자 하였다. 세조대 수많은 여진족이 조선에 入朝하였고(226회), 이들에게 조선은 조선의 무관 관직을 제수하여 조선의 영향력 아래에 편입시키고자 하였다.³⁴⁾ 즉 세조대는 조선의 국력이 상당히 커졌을 뿐만 아니라 변동하는 국제정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조선의 대외적 영향력을 상당히 확대하였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세조대의 자주적 문화 및 국방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 梁誠之(1415~1482)였다.

양성지는 고향이 전라도 남원이며 태종 15년에 출생하여 성종 13년에 68세로 사망하였다. 그의 가문은 고려말 鄉吏에서 士族으로 상승하였지만 권력의 중심에서는 떨어져 있던 향촌세력이었다. 그는 가문도 한미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반도 처음에는 상당히 빈약하였다. 그는 탁월한 재능에 힘입어 과거를 통하여 재상에까지 오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³⁵⁾ 양성지는 세종 23년(1441) 27세에 문과에 급제하고 수찬, 부교리, 응교 등 집현전의 관직을 두루 거치고 세조대에 집현전 직제학, 이조판서, 대사헌, 홍문관직제학, 훈련관사, 평안도경차관, 경흥부윤 등 중앙과 지방의 주요 관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북방 지역인 평안도와 함경도 관련 관직을 거친 점은 그의 군사사상 형성에 많은 영

33) 한영우, 1983 『조선전기사회경제연구』 을유문화사, 84~90쪽

34) 세종의 집권 32년 동안 349회를 제외하고 세조대 여진족이 조선에 입조한 226회는 두번째로 많은 횟수이며 14년에 불과한 세조의 집권 기간을 고려한다면 이는 매우 높은 빈도이다(년 16회). 조선초기 여진족에 대한 포섭 정책과 관직 제수에 대해서는 김구진, 1995 『여진과의 관계』 『한국사』22, 국사편찬위원회, 350~353쪽에 자세하다.

35) 한영우, 1983 『조선전기사회사상연구』 지식산업사, 164~166쪽

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성종대에도 공조판서, 홍문관 대제학 등을 거쳤지만 세조대에 비해 두드러진 양상을 보이지는 못하였다(<부록-1> 양성지의 약력³⁶⁾ 참조). 즉 그의 주된 관직 생활과 중심적인 정치적 활동의 세조대였음을 반영한다.

양성지는 經學에 치우친 당시의 학문 경향을 반대하고 역사와 지리를 중심으로 하여 경학, 兵學, 音樂, 農學, 醫學 등 넓은 분야에 미치고 있었다. 이는 그의 사상이 실용을 중요시하여 국력 배양과 민생 안정을 목표로 하는 富國強兵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그는 군사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 348건의 상소문 중에서 약 40%인 130여건이 군사관련 내용이었다. 그의 군사 분야에 대한 관심은 기본적으로 역사 및 지리에 대한 저서 및 편찬사업 참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었다.³⁷⁾ 다음의 <표-1>은 그의 저서 및 그가 참여하여 편찬된 서적의 목록을 보여준다.

그는 약 30종의 저술 이외에 그의 사후 각종 상소 등을 모은 문집인 『눌재집』이 간행되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그의 저술 목록 중에서 역사서 및 지리서의 비중이 매우 높는데 비해 군사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그의 경력과 달리 兵學에 관련된 서적은 『孫子註解』 한 종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양성지의 군사사상 형성에 병학 관련 서적 못지않게 역사 및 지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즉 한국의 군사사상사 연구에서 기존의 군사 관련 언급 및 서적에 국한된 연구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탈피하여 역사 및 지리 의식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함께 드러내고 있다.

36) 이 약력표는 2008년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를 받은 정재열 소령이 작성한 연표임을 밝힌다.

37) 강성문, 2000 『양성지의 군사관』, 『한민족의 군사적 전통』 99~100쪽

〈표-1〉 양성지의 저서 및 편찬서 목록

역사	오조실록일기 고려사지리지 고려사절요 치평요람 황성계감
지리	동국여지승람 팔도지리지 沿邊防戍圖 沿邊城子圖 양계연변방수도 八道圖 여연·무창·우예삼邑圖 濟州三邑圖
문화	동문선 열성어제시 용비어천도
정치 및 윤리	황극치평도 유선서 오륜록 삼강사략
의학 및 농학	의방유취 농잡서 축목서
병학	손자주해
기타	해동성씨록 동국도경

2. 양성지의 군사사상

양성지의 군사사상에 대해서는 현재 수 편의 연구가 제출되어 군사사상의 전체적인 윤곽을 확인할 수 있다.³⁸⁾ 이를 통해 그의 군사사상은 軍制 개편, 군사의 확보, 무기 개발, 關防論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군사사상의 내용들이 어떠한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급변하고 있는 15세기 중반의 동아시아 국제정세 변화와 관련하여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군사사상 형성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유기적인 설명을 다소 결하고 있는 경우가 일부 연구에서 보이기도 한다. 이는 양성지 사상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사 및 군사사상에 대한 개념적 고찰을 결한 것에 원인을 둘 수 있다.

양성지의 군사사상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의 역사관과 영토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우리 역사에 대한 해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주적인 역사관을 견지하였다. 양성지는 시조 단군을 추앙하고 중국과 조선의 동등성(小中華主義)을 강조하며, 아울러 우리 영토의 지리적 독립성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대외관계의 측면에서 우리 민족은 중국 및 북방족과 전쟁을 하여 일시 패배한 적은 있었지만 종속되거나 흡수되지 않고 자주를 유지하였으므로 중국의 다른 藩國과는 다른 위치임을 주장하였다.³⁹⁾

양성지의 역사관은 지리의식 및 영토의식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는 『고려사』 지리지 편찬을 전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팔도지리지』 등 다양한 인문지리서 편찬에 참여하였다. 특히 세조대 북방 지역 관직을 두 차례 거치면서 변방 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리 정보를 가지게 되었다. 『연변방수도』, 『연병성자도』, 『양계연변방수도』 등의 지도를 제작하였다. 이들 지도는 북방으로의 영토 확장 전쟁 및 방어를 위한 관방시설 등의 기록이 필요하여 제작된 것이었다.⁴⁰⁾ 이를 통해 양성지

38) 한영우, 1975 『눌재양성지의 사회정치사상』 『역사교육』17 ; 노상복, 1983 『양성지의 備邊十策』 『군사』7 ; 정태현, 1984 『눌재 양성지의 국방관』 『소현남도영박사 화갑기념 사학논총』 ; 김호일, 1986 『양성지의 관방론』 『한국사론』7 ; 강성문, 2000 『앞의 논문』 ; 김호일, 2005 『눌재 양성지의 국방사상』 『유교사상연구』22

39) 『눌재집』 권2 『便宜二十四事』

40) 이상태, 1999 『한국 고지도 발달사』 혜안, 19~22쪽

의 지리의식은 자연스럽게 군사사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양성지는 매우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영토관을 가지고 있었다.

양성지는 조선과 명나라의 국경은 요하를 경계로 하여 요동과 장백 이남을 포함하는 萬里의 강토를 조선의 강역으로 하여야 하나 우선은 명나라 황제가 약속한 連山(오늘날의 요녕성 本溪市)으로서 국경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즉 이상적으로는 우리의 이전 영토인 요동을 수복할 것을 목표로 하면서 현실적으로는 명나라가 이 지역으로 세력을 뻗어오는 것을 저지하여 최소한 연산 이동 지역은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¹⁾ 이는 세종 말 토목의 변으로 인하여 동북아 지역 일대의 지역적 유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의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한반도 북부 지역 방어에서 關防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동 지역의 산맥인 千山山脈을 활용하기 위해 천산산맥의 입구인 本溪를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역사관 및 영토관을 바탕으로 양성지는 대외적 위협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세조 당시 그는 명, 여진, 왜구를 실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오이라트와 타타르 등 몽골 세력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였다. 그는 과거의 전쟁사에서 우리 민족의 승률을 제시하였는데, 漢族에게는 70%, 野人에게는 50%, 왜구에게는 30%의 승률을 기록하였다고 분석하였다.⁴²⁾ 특히 세종 말년 이후 양성지는 조선에 대한 최대 위협은 몽골에 있었다고 파악하였는데,⁴³⁾ 이는 토목의 변을 계기로 몽골의 오이라트와의 대규모 전쟁을 상정하였던 그의 국제정세관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의 이러한 위협 인식은 세조대 주장한 군제 개편 및 관방론에 잘 반영되어 있다.

양성지의 국방에 대한 관심은 軍事 및 武에 대한 그의 우호적 인식,

41) 한영우, 1983 『앞의 책』 171~173쪽, 199쪽

42) 『눌재집』 권3 『軍政十策』

43) 世祖대 조선의 위협인식과 군사전략에 대해서는 김병환, 2009 『조선 세조시기 군사력건설 연구』(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7~28쪽에 자세히 다.

즉 崇武意識과 관련이 있다. 그는 文과 武를 함께 우대할 것을 주장하면서 대개 무신은 힘들면서도 권세가 없으며 문신에 의해 배척되는 것을 비판하고 기존의 학자들의 致祭하는 文廟에 비견되는 武成廟의 설립을 주장하였다.⁴⁴⁾ 그리고 여기에 민족통일이나 외침을 물리친 군주 및 장군 등을 모시고 致祭할 것을 주장하였다.⁴⁵⁾

이상의 인식을 바탕으로 양성지의 군사 개혁론이 나타나게 된다. 먼저 軍額(병력수) 증대를 주장하였다. 세종대 10만명의 정규군을 확보하였던 조선은 몽골 등의 대규모 침입이 예상됨에 따라 병력 확충이 요구되었다. 양성지는 철저한 호구 및 軍丁 파악을 통해 30만명의 병력 확보를 목표로하였는데 실제 세조 7년에는 正兵 15만, 수성위 5만, 수성군 10만 등 총 30만 명의 군사력 확보가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양성지는 군사제도의 개편을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병과 기병, 현역군과 예비병의 균등한 조화를 언급하였다. 이는 당시의 전술인 『진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진법』에 의하면 보병과 기병을 동일한 비중으로 편성하도록 하였다.⁴⁶⁾ 이에 양성지는 중앙군 3만 3천 중에서 내금위, 별시위, 갑사 등 기병을 주력으로 하는 병종을 1만 5천 명으로 확대하고 방패, 섭육십, 총통위 등 보병을 위주로 하는 병종을 1만 5천 3백으로 정원을 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예비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계 각층의 사람으로 구성되는 煙戶雜色軍 약 15만 명을 충원할 것을 주장하였다.⁴⁷⁾ 이는 세조대 당시의 현역군 15만 3백 명과 비슷한 규모로서 그의 군사제도 개편안이 병력 확대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군사 확보 및 군사제도 개편과 함께 다음으로 새로운 무기의 개발을

44) 『눌재집』 권1 『論君道十二事』; 『눌재집』 권2 『便宜二十四事』

45) 한영우, 1983 『앞의 책』 30~31쪽

46) 『陣法』 『分數』. 조선초기 전술과 군사 편제에 대해서는 하차대, 1989 『조선초기 군사정책과 병법서의 발전』 『군사』19에 자세하다.

47) 『눌재집』 권4, 『兵事六策』

주장하였다. 그는 우리의 전술에 맞는 무기의 개량과 장비에 관심을 기울여 각종 화포의 개량과 소형화 등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조선의 장기인 片箭의 교습을 강조하고 이 사격 기술이 여진족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국경지대의 교습을 금지시켰다.⁴⁸⁾ 그리고 우리의 전투 사례에서 성곽 전술을 높게 평가하고 공성 및 수성 무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⁴⁹⁾ 양성지는 무기 개량과 함께 무기 제조술의 보안에도 관심을 두었다. 그는 화포 제작 기술을 담은 서적인 『銃筒騰錄』이 외국에 유출될 것을 우려하여 불필요한 보관을 금지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漢文本의 경우 중국인이 입수시 기술 유출이 되므로 모두 없애고 諺文 번역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군의 사기와 보훈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북방 관직자 우대 및 전사자에 대한 보훈책을 강조하고 군량 확보책 등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군사 개혁론과 함께 양성지의 군사사상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關防論이다. 關防이란 적의 침입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설치된 적극적인 방어시설물 일체를 언급하는 것⁵⁰⁾으로 그의 관방론은 크게 行城無用論, 要邑關防論, 四郡廢棄論의 세 가지로 정리된다.⁵¹⁾

行城이란 사람의 통행이 쉬운 길목을 가로막을 목적으로 설치한 성곽으로서 평지에는 석성을 쌓고 낮고 습한 곳에는 모책을 세우고, 높고 험한 곳은 땅을 깎아 내리고 또 城堡나 煙臺를 세워 대비하였던 방어 시설물이었다.⁵²⁾ 行城은 세종대 4군 6진의 북방개척의 과정에서 국토를 변방에서 지키고자 하는 세종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⁵³⁾

48) 『눌재집』 권2 「便宜二十四事」

49) 『눌재집』 권4, 「兵事六策」

50) 강성문, 1996 「조선전기의 관방론 연구」 『육사논문집』50, 2쪽

51) 양성지의 관방론에 대해서는 김호일, 1986 「앞의 논문」; 강성문, 2000 「앞의 논문」 등을 참조함

52) 강성문, 「앞의 논문」 6쪽

53) 오종록은 세종대 행정 중심 관방론을 '국경 중심 관방론'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오종록, 1996 「조선초기의 國防觀」 『진단학보』86, 149~150쪽).

양성지는 행성 축조에 과도한 공역이 들뿐만 아니라 방비를 위한 병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몽골의 침입 등 다수의 적군을 막기에는 행성이 비효율적임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要邑關防論이다.

요읍관방론이란 內地의 중요한 읍[要邑]에서 방어하는 관방론으로 국경상의 선 방어가 아닌 주요 거점 단위의 축차 방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⁵⁴⁾ 양성지는 도별로 가장 중요한 고을[緊郡]과 다음으로 중요한 고을[次郡] 총 50개소(긴군 21개소, 차군 29개소)를 제시하였다.⁵⁵⁾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각 도별 緊郡 및 次郡

道	緊郡	次郡
함길도	회령, 종성, 온성, 경원, 경성, 이성, 단천, 갑산, 함흥	길주, 안변, 영흥, 북청, 홍원, 정평, 덕원
평안도	의주, 삭주, 강계, 희천, 평양, 영변, 안주	여연, 박천, 성천
황해도	황주, 서흥	곡산
강원도		강릉, 회양
경상도	김해, 창원	상주, 안동, 경주, 진주, 양산
전라도		전주, 남원, 나주
충청도		충주, 공주
경기	경성	개성, 양주, 광주, 수원, 강화, 원평(파주)

마지막으로 양성지는 세종대 개척하였던 압록강 상류의 4개 고을인 四郡을 폐기할 것을 주장하였다. 四郡은 여연, 자성, 우예, 무창 등으로,

54) 『눌재집』 권1, 『請罷行城兼備南方』

55) 『눌재집』 권1 『비변십책』

태종 16년 처음으로 이 지역 개발에 착수하여 세종 25년(1443)까지 모두 27년이 소요되었다. 4군은 지리적으로 적지에 깊숙이 돌출되어 있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여러 곳을 통해 적군의 침입이 용이하여 조선이 이를 방어하기에 불리한 지형일뿐 아니라 격오지인 관계로 부방과 입보에 따른 폐단과 거주민의 고통이 지속되었다. 특히 토목의 변의 영향으로 대규모 적군의 조선 침입 가능성에도 대비하여야 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따라서 변경 오지인 이 지역 방어에 중점을 두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양성지는 단종 원년 역연, 무창, 우예 3읍의 철폐를 주장하였고 그 영향으로 단종 3년에 자성군을 제외한 세 고을은 철폐되었고 세조 5년에는 자성군마저 철폐되었다.⁵⁶⁾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한 영토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양성지는 행정무용론과 4군 폐기론 제기하는 대신 要邑關防論을 통하여 당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그의 관방론은 해박한 지리지식과 역대 전쟁 양상, 국제정세 분석 등을 바탕으로 당시 절실히 요구되는 조선의 국방체계를 개편하고자 한 것이었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군사사상의 중요성과 개념, 정립 요인, 한국 군사사상사의 연구 동향을 살피고 구체적인 군사사상가로서 15세기 중반의 인물인 양성지의 군사사상을 개관하였다. 이를 통해 이 시기 군사사의 흐름과 군사사상과의 연관을 살필 수 있었다. 다만 한국군사사상사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점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문관으로서 군사적 식견을 통해 다양한 군사에 관한 글을 남긴 인물을 군사사상가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앞서 언급하

56) 김호일, 1986 『앞의 논문』, 27~29쪽

였듯이 한국의 무관 중에서 자신의 글을 제대로 남긴 경우는 이순신, 申櫓, 송규빈 등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다수의 군사 관련 글을 남긴 인물이나 부가적으로 군사에 관한 문제를 언급한 문관 출신 인물들의 군사 관련 사상을 한국 군사사상사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조선의 문신들도 대부분 관찰사와 지방 수령 등을 통해 지방의 군사책임자를 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군사적 식견과 언급을 한국 군사사상사의 범주에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군사사상의 범주로 현재 많이 따르고 있는 전쟁관(전쟁지도/수행신법), 군사력 건설, 군사력 운용이라는 3가지 범주의 적합성 문제이다.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으나 한국 군사사상사에서 전쟁관에 대한 부재의 문제와 함께 군사력 건설, 운용이라는 설명의 틀이 각 인물의 군사사상 관련 내용을 정리하는데 다소 교조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또한 다양한 개인의 군사사상적 측면을 다소 과격하게 재단하여 역사관, 지리관 등 군사사상과 관련된 풍부한 내용을 놓칠 우려가 있다. 아울러 근대 이후의 급속한 과학기술과 무기체계 발전에 따른 군사기술의 측면을 군사사상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

필자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 군사사상사의 정립을 위해 인물 중심의 군사사상사 서술의 필요성이 그것이다. 전통 시대 이후 한국의 군사에 관한 다양한 언급을 한 역사적 인물들이 적지않게 있으므로 이들의 군사사상을 정리하여 이를 중심으로 한국 군사사상사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선 자세히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 서양 군사사상사 연구의 경우도 대부분 주요 인물의 군사사상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인물 중심의 군사사상 정립의 필요성은 매우 시급하다.⁵⁷⁾ 이를 바탕으로 시대적, 군사적 상황과의

57) 주요한 인물 중심의 서양 군사사상사 연구의 대표적인 성과로는 Peter Paret, *Makers of Modern Strategy : from Machiavelli to the Nuclear Age*

한국 군사사상사 연구의 흐름과 근세 군사사상의 일례

유기적 설명을 통해 통사적 형태의 한국군사사상사의 정립과 미래에 요구되는 한국적 군사사상의 확립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Princeton University Press,1986) 등을 들 수 있다.

〈부록 1〉 양성지의 약력

왕력	서기	연령	내 용	
태종	15	1415	1	09월 13일, 태어나다.
세종	23	1441	27	○생원·진사시에 합격하고, 이어 문과 급제하다.
세종	25	1443	29	○12월, 집현전 수찬이 되다.
세종	26	1444	30	○參試官이 되다.
세종	28	1446	32	○9월, 춘추관 기사관을 겸하다.
세종	31	1449	35	○5월, 집현전 부교리로 〈請罷行城兼備南方〉을 상소하다.
세종	32	1450	36	○1월, 〈邊備十策〉을 상소하다
문종	1	1451	37	○1월, 參試官이 되고 9월 집현전 응교가 되다.
단종	1	1453	39	○10월, 경연 검토관이 되다.
단종	2	1454	40	○1월, 「皇極治平圖」를 찬진하다.
단종	3	1455	41	○5월, 집현전 직제학, 지제교, 경연사독관이 되다. ○7월, 세조가 즉위하자 〈論君道十二事〉를 상소하다. ○平安道 敬差官이 되어 閔延 등 세 廢邑을 돌아보고 오다. 그곳 地圖와 地誌를 바치고 〈道內便宜十八事〉를 상소하다.
세조	3	1457	43	○8월, 訓練觀事 直修文殿 知製教가 되다. ○中樞院事가 되다.
세조	5	1459	45	○8월, 「明皇誠鑑」을 번역하고 11월, 「醫文類聚」를 교정하다.
세조	6	1460	46	○1월, 동지춘추관사가 되다. ○「孫子注解」를 교정하다. ○3월, 명 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6월 귀국하다.
세조	7	1461	47	○7월, 동지중추원사가 되다.
세조	9	1463	49	○9월 「東國通鑑」 편찬에 참여하다. ○홍문관 제학이 되다.
세조	10	1464	50	○7월, 〈軍政十策〉을 상소하다. ○9월, 이조판서가 되다.
세조	11	1465	51	○3월, 知中樞院事가 되고 이후 대사헌이 되다 ○7월, 盧思愼 등과 「五倫錄」을 찬하다.
세조	12	1466	52	○ 7월, 「大明律講解」·「律學解頤」·「律解辨疑」 등을 교정하고 11월에 〈書籍十事〉를 상소하다.

한국 군사사상사 연구의 흐름과 근세 군사사상의 일례

세조	14	1468	54	○7월, 李石亨 등과 명을 받고 「律呂新書」를 講하다.
예종	1	1469	55	○2월, 한명회·崔恒 등과 함께 「世祖實錄」을 편찬하다.
성종	1	1470	56	○1월, 〈便宜十六事〉를 상소하다.
성종	2	1471	57	○知中樞院事가 되다. ○ 4월, 佐理功臣에 策勳되고 南原君에 봉해지다.
성종	3	1472	58	○1월, 〈邊防四策〉을 상소하다. ○3월, 「大典」을 교정하고 〈校正大典四十五事〉를 상소하다.
성종	5	1474	60	○7월, 〈軍政四事〉를 상소하다. ○10월, 奉朝賀가 되다. ○ 沿邊防戍圖를 바치다.
성종	6	1475	61	○4월, 兩界防戍圖를 바치다. ○6월, 〈兵事四策〉을 상소하다.
성종	7	1476	62	○12월, 춘추관사 홍문관 대제학을 겸하다.
성종	8	1477	63	○7월, 奉朝賀가 되다. ○ 〈事大國斥遠人〉을 상소하다. ○10월, 대사헌이 되다. ○공조판서가 되다.
성종	9	1478	64	○4월에 〈風俗學校十二事〉를, 10월에 〈軍國秘計二事〉를 상소하다. ○ 「八道地理誌」를 찬진하다.
성종	10	1479	65	○6월, 파직되다.
성종	12	1481	67	○11월, 文臣庭試에서 장원하여 崇政階에 오르다.
성종	13	1482	68	○6월 11일, 卒하다.

| 참고문헌 |

- 강석화, 2003 「조선후기의 북방영토의식」 『한국사연구』129
- 강성문 외, 1973 『한국군사사적해제』 육군사관학교
- 강성문, 2000 「양성지의 군사관」 『한민족의 군사적 전통』
- 강성문, 1996 「조선전기의 관방론 연구」 『육사논문집』50
- 권정식 외, 1980 『국방지리』 시사문화사
- 김경수, 2003 「조선 중기 史官의 국방의식-『명종실록』 사론을 중심으로」 『군사』48
- 김구진, 1995 「여진과의 관계」 『한국사』22
- 김병환, 2009 「조선 세조시기 군사력건설 연구」 (국방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호일, 1986 「양성지의 관방론」 『한국사론』7
- 김호일, 2005 「눌재 양성지의 국방사상」 『유교사상연구』22
- 김희상, 1993 「생동하는 군을 위하여」 전광
- 노대환, 2003 「조선후기 서양세력의 접근과 해양관의 변화」 『한국사연구』123
- 노상복, 1983 「양성지의 備邊十策」 『군사』7
- 노영구, 2002 『조선후기 병서와 전법의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노영구, 2003 「韓嶠-조선의 병학을 정립한 성리학자」 『한국사인물열전』 2
- 노영구, 2007 「최근의 조선시대 군사사 연구경향과 과제」 『교수논총』44
- 로렌스 손드하우스(이내주 역), 2007 『전략문화와 세계각국의 전쟁수행 방식』 화랑대연구소
- 룩 환텐, 1984 『유목민족제국사』 민음사, 419~421쪽
- 문정인 외, 2006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연세대학교 출판부
- 박원호, 1995 「명과의 관계」 『한국사』22, 국사편찬위원회

- 박원호, 1995 『15세기 동아시아의 정세』 『한국사』22, 군사편찬위원회
- 박원호, 1991 『永樂年間 명과 조선간의 여진문제』 『아세아연구』85
- 배우성, 1998 『조선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일지사
- 백기인, 1996 『中國軍事思想史』 국방군사연구소
- 백기인, 2004 『조선후기 국방론 연구』 해안
- 부남철, 2006 『조선시대의 대외전쟁과 유교적 和·戰論』 『동양정치사상사』 5-2
- 양진혁, 2007 『여말선초 북방방위전략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종록, 1996 『조선초기의 國防觀』 『진단학보』86
- 육군교육사령부, 1985 『한국군사사상연구』
- 육군본부, 1983 『군사이론 대국화 추진방향』
- 육군본부, 1989 『한국의 군사사상』
- 육군본부, 1991 『韓國軍事思想』
- 윤훈표, 2003 『조선전기 북방개척과 영토의식』 『한국사연구』129
- 이병주·강성문, 1981 『한국군사사상사』 육군사관학교
- 이상태, 1999 『한국 고지도 발달사』 해안
- 임민혁, 2004 『임진왜란 전후 국방의식 변화와 국방전략』 『군사사연구총서』4
- 장학근, 1986 『조선시대 해방사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태헌, 1984 『눌재 양성지의 국방관』 『소헌남도영박사화갑기념 사학논총』
- 정하명, 1979 『고병서해제』 육군본부
- 정해은, 2000 『장서각 소장 군영등록류 자료에 관한 기초적 검토』 『藏書閣』4
- 정해은, 2004 『한국 전통병서의 이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정해은, 2007 『한국 전통병서의 이해』(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조병한, 2004 『海防 체제와 1870년대 李鴻章의 洋務운동』 『동양사학연구』88
- 조혁상, 2008 『19세기 병서 『孫子髓』 연구』 『군사사 연구총서』5
- 최문길, 1994 『군사사상의 정립체계』 국방대학원
- 최희재, 1985 『1874~5 海防·陸防論의 성격』 『東洋史學研究』22
- 하차대, 1989 『조선초기 군사정책과 병법서의 발전』 『군사』19
- 한영우, 1983 『조선전기사회경제연구』 을유문화사
- 한영우, 1983 『조선전기사회사상연구』 지식산업사
- 한영우, 1975 『눌재양성지의 사회정치사상』 『역사교육』17
- 허선도, 1969 『무예도보통지』 『한국의 명저』 현암사
- 허선도, 1970 『〈陣法〉考- 書名 〈병장도설〉의 잘못을 바로 잡음』 『역사학보』47
- 홍준기, 2004 『한국 자주국방 정책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 -1970년대 박정희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까지를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姜國柱, 2006 『中國軍事思想簡史』 新世界出版社
- 淺野祐吾, 1979 『軍事思想史入門-近代西洋と中國-』 原書房
- 岩田孝三, 1943 『國防地政學』 帝國書院
- 江澤讓治 외, 1944 『國防地政論』 巖松堂書店
- 朴榮濬, 2002 『海軍の誕生と近代日本：東アジアにおける近代國家変容の軍事的基礎に関する一研究』 東京大學博士學位論文
- Alastair Iain Johnston, *Cultural Realism : Strategic Culture and Grand Strategy in Chinese History*(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 Michael D. Swaine, *Interpreting China's Grand Strategy: Past,*

Present, and Future(RAND Corporation, 2000)

Peter Paret, *Makers of Modern Strategy : from Machiavelli to the Nuclear Age*(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Thomas X, Hammes(최종철 역), 2008 『21세기 제4세대 전쟁』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The Trend on the Korean Military Thoughts History
and an example of Pre-Modern Military Thoughts
-Focusing on Yang Seong-ji in the mid 15th Century-

Roh, Young-koo*

This article is focusing on the importance, concepts, and theses of Military Thoughts. This article also tried to find the research trend on the Korean Military Thoughts History. In addition, this article makes a general overview of Yang Seong-ji in the mid 15th Century. The fundamental objects of Military Thoughts are Tactics of a person for Military Affairs and Military Tactical Manuals. The circumstances at that time, the Military System, and Weapon system are based on the preceding two essential elements on Military Thoughts. From now on, this article insist on the necessity of the Study on the History of Korean Military Thoughts focused on a military figure.

Key Words: Military Thoughts, Yang Seong-ji, Military System, Military Tactical Manuals

* Professor,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